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6차 신학포럼

발표 : 최한성 박사 · 이기운 박사

- ❖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 ❖ 장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본관4층 설교센터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목 차

·알리는 말씀 -----	5
·발표1: "상처 입은 예전의 치유 (Healing a Wounded Liturgy)" 발표/ 최한성 박사 -----	7
·발표2: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에 암시된 이상적인 목회자상" 발표/ 이기운 박사 -----	23

•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6차 신학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발표와 진행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포럼이 끝난 후 중식이 제공되오니,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본 학회는 연 4회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복음과 실천신학」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복실 홈페이지(<http://kept1997.kr>)에서 논문검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한 논문 검색과 논문 투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38회 정기학술대회가 2019년 11월 9일(토) 하남교회(담임목사: 방성일)에서 “공적 신학과 열린 목회”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발표 1]

상처 입은 예전의 치유 (Healing a Wounded Liturgy)¹⁾



최한성 (게렛신학대학원 예배학/설교학 Ph.D.)

초록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또한 수찬자들은 영생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렇기에 성찬은 천국 잔치이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 개신교회는 성찬식을 마치 그리스도의 장례식처럼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행한다. 이는 한의 집단적 경험에 의한 상처 입은 마음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 집단적 애도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기억하는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쉽게 동화되게 한다. 상처 입은 마음은 필연적으로 상처 입은 예전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처 입은 예전은 치유가 필요하다. 한국 개신교 수찬자들은 상처 입은 마음(한)에서 '사랑(정)'으로 사랑에서 '기쁨(흥)'으로 이어지는 '삼중의 마음 전이(triple-hearted transition)'를 통해서 '변혁적 치유(한풀이)의 실행(transformational *hanpuri* performance)'이 가능하다. 삼중의 마음 전이를 통해 상처 입은 예전이 치유 예전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한의 마음에 사로잡힌 한국의 수찬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인 그리스도의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급진전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성찬의 거룩한 식사를 먹은 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급진적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혁적 치유 실행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한국 개신교 수찬자들이 갖고 있는 상처 입은 마음을 풀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며, 그리고 기쁨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성찬의 치유모델을 제시한다. 이 성찬 치유 모델은 한국 개신교 수찬자들이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어서 천국 잔치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찬식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핵심어: 상처 입은 마음, 예전, 치유, 사랑, 기쁨

1)'상처 입은 예전(wounded liturgy)'은 은유적 표현으로 상처입은 마음이 모여 예전을 실행하게될 때 발생하게되는 예전을 일컫는다.

연구문제 진술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수찬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기에 성찬식은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이어서 영생을 주신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예전이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성찬식은 엄숙하다. 애도의 분위기가 가득하다. 성찬식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강조한다. 왜 한국 개신교의 성찬식은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더욱 집중하는가? 첫 번째 가능성은 한국의 조상 제사의 문화와 연결될 수 있다. 죽은 이에 대한 제사의 경험, 즉 고인을 기억하는 조상 제사의 경험이 성찬식에서 애도의 분위기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더욱 집중하게 할 수 있다.²⁾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다른 가능성은 '상처 입은 마음(the wounded heart)인 '한'과 관련이 될 수 있다. 상처 입은 마음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한의 사회적 기억(the social memory of han)'에서 기인한 마음이다. 이는 세대를 걸쳐서 내재해 있는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깊게 배어 있는 정서다. 정서(affection)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서는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한다.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사회적 기억의 상처 입은 마음은 성찬식이 상처 입은 예전이 되게 한다.

이러한 상처 입은 예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가능하다. 첫째는 '몸의 의례적 움직임(bodily ritual actions)'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찬식에서 몸의 의례적 활동에는 '소리치기,' '뛰기,' '손뼉 치기,' '울기,' '좌우 앞뒤로 움직이기,'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기,' '찬양하기,' 그리고 '춤추기' 등이 포함된다. 몸의 의례적 활동으로 수찬자는 역동적으로 마음을 표출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는 '삼중의 마음 전이(triple-hearted transition)'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한(상처 입은 마음)에서 정(사랑)으로, 정에서 흥(기쁨)으로 이어지는 전이의 마음이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다. 아낌없는 사랑은 떡과 포도주에 담겨있다. 수찬자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급진적 사랑(정)을 받는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첫 열매 되심을 선포한다. 수찬자들은 영생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음으로써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들의 부활을 품는다. 그렇기에 수찬자는 성찬식을 통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세 개의

2) 박해정은 한국조상제사와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이 강조되는 성찬식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그의 논문을 참고하라. 박해정, "성찬,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652호 (2013년 4월): 44-52.

마음은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다음 마음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뜸(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뜸의 시간은 이전의 마음을 묵상하고 다음의 마음을 기대하게 한다.

각장의 요약

이 논문은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에 해당되어 논문의 연구문제 진술, 선행 연구, 연구 방법론, 그리고 각장의 요약을 포함한다. 논문의 제목인 ‘상처 입은 예전(wounded liturgy)’은 2장과 3장에 해당하며, 상처 입은 예전을 ‘치유’하는 부분은 4장, 5장, 그리고 6장이다. 2장은 상처 입은 예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전 신학의 3가지(*lexorandi*, *lexcredendi*, and *lex vivendi*) 기본적 토대를 설명한다. 3장은 성찬 예문과 실행의 비교를 통해서 상처 입은 예전은 본문과 실행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4장은 상처 입은 마음으로 발생한 예문과 실행의 불일치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유 모델을 제시한다. 5장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문맥적 방법으로 완전한 한풀이(치유)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장은 ‘몸의 의례적 움직임,’ ‘삼중의 마음 전이,’ 그리고 ‘뜸’의 예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성찬의 치유 예전을 제안한다.

2장-상처 입은 예전 신학의 형성(Forming a Wounded Liturgical Theology)

예전 신학을 이해할 때 기도의 법칙, 믿음의 법칙, 그리고 삶의 법칙의 상관성은 중요하다. 이 논문은 그 관계성 안에 사회-문화적 문맥으로 한의 법칙을 추가한다. 이 한의 법칙은 ‘상처 입은 예전 신학(A Wounded Liturgical Theology)’을 낳는다.

3가지 예전 신학의 이해

1) 기도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다(*lexorandi est lexcredendi*):

Alexander Schmemmann(Russian Orthodox)과 Aidan Kavanagh(American Roman Catholic)가 주요한 학자들이다. 기도(예배)와 믿음을 종속적 관계로 이해한다. 기도(실천)는 믿음(신학)을 담고 있으며 믿음을 표현하고 형성한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에 기반하고 기도와 분리될 수 없다.

2) 기도의 법칙, 믿음의 법칙(*lexorandi, lexcredendi*): Edward

Kilmartin(Roman Catholic)과 Geoffrey Wainwright(British Methodist)이 주요한 학자들이다. 이 관점은 기도와 믿음을 상호적 관계로 여긴다. 기도가 믿음을 형성하고, 믿음이 기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기도는 신학적(믿음) 내용을 포함한다. 믿음은 기도의 내용(실행)을 반영함으로써 형성된다.

3) 기도의 법칙, 믿음의 법칙, 삶의 법칙(*lexorandi, lexcredendi, and lex vivendi or lex agenda*): Kevin W. Irwin(Roman Catholic)은 이 관점의 주요한 학자이다. 이 관점은 기도와 믿음의 법칙을 삶의 법칙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도한 것처럼 살고 믿는 데로 산다는 관점이다.

상처 입은 예전 신학(A Wounded Liturgical The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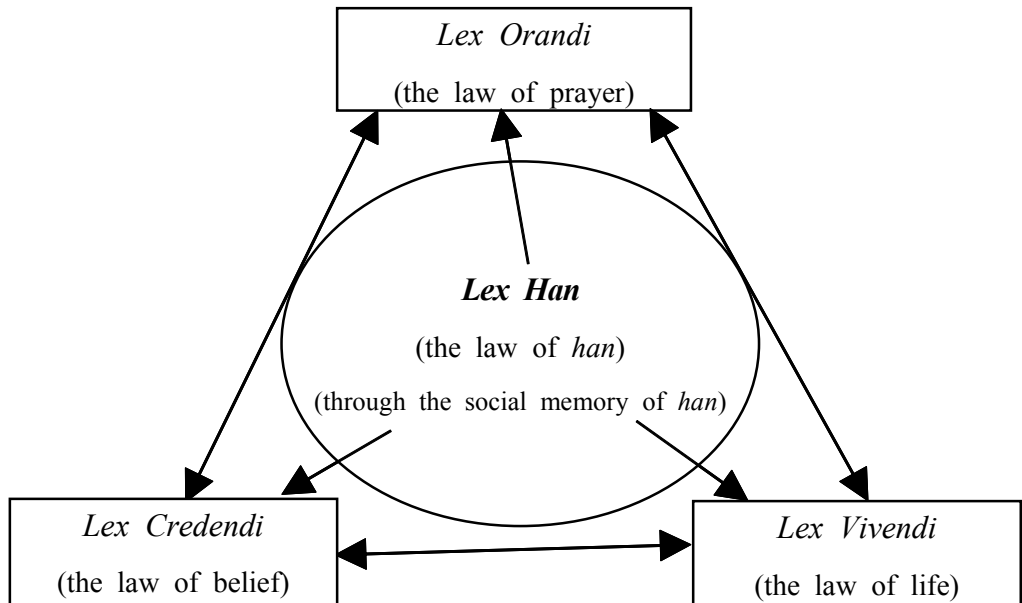
4) 한의 법칙, 기도의 법칙, 믿음의 법칙, 그리고 삶의 법칙(*lexhan, lexorandi, lexcredendi, and lex vivendi*): 이 논문은 예전 신학의 구조를 이루는 기도, 믿음, 그리고 삶의 관계에 ‘한의 법칙(*lexhan*)’을 추가한다. 한의 법칙은 ‘한의 사회적 기억(the social memory of *han*)’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한은 한 집단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이 논문은 한을 ‘상처 입은 마음’으로 정의한다. Andrew Sung Park은 개인적 한과 집단적 한을 구분하여 설명한다.³⁾

[Park’s 한의 구조]

Perspectives	Dimensions	
	Individual <i>Han</i>	Collective <i>Han</i>
Active-Conscious <i>Han</i>	The Will to Revenge	The Corporate Will to Revolt
Passive-Conscious <i>Han</i>	Resignation	Corporate Despair
Active-Unconscious <i>Han</i>	Bitterness	Racial Resentment
Passive-Unconscious <i>Han</i>	Helplessness	Racial Lamentation

이 논문은 개인적 한보다도 집단적 한에 초점을 맞춘다. 이 중에서 이 논문은 민족적 애도의 마음과 관련되는 ‘수동적 집단 무의식의 한(passive collective unconscious *han*)’에 주안점을 둔다. 이는 집단적 무의식 속에 ‘민족적 애도’의 마음으로 표현된다.

3) Andrew Sung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3), 31-44.



(the law of belief)
Lex Han, Lex Orandi, Lex Credendi, and Lex Vivendi

위의 도표는 한의 법칙이 신앙 공동체의 기도,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삶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졌다(*Lex Han, Lex Credendi*). 상처 입은 마음은 삶의 여러 곳에서 슬픔, 비통, 절망, 분노, 애도 등의 마음으로 쉽게 표출될 수 있다(*Lex Han, Lex Vivendi*). 한의 법칙은 성찬식에서 상처 입은 예전을 형성한다(*Lex Han, Lex Orandi*). 한국 개신교 수찬자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은, 특히 집단적 애도를 불러일으키는 ‘수동적 집단 무의식의 한’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 집단적으로 슬픔과 애도의 마음이 자연스레 표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억으로써 형성된 한의 마음은 성찬식에서 상처 입은 예전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3장-상처 입은 예전 신학의 설명(Describing a Wounded Liturgy)

3장은 한국 개신교 성찬 예문과 실행을 비교함으로써 두 사이에 불일치가 상처 입은 예전의 증거임을 주장한다.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회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두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상처 입은 예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힌다. 두 교회는 미국 일리노이즈주에 있는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FKUMC)와 쥬블리한인감리교회(JKCC)이다. FKUMC는 2001년에 연합감리교

회에서 발행한 *Come, Let Us Worship: The Korean-English United Methodist Hymnal* (CLUW)을 사용하고 있다.⁴⁾ JKCC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2006년에 발행한 *예문*을 사용하고 있다.⁵⁾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예문*과 연합감리교회의 *Come, Let Us Worship* 대조]

The Order of Holy Communion (<i>The Ritual Texts 1</i>, the KMC)	A Service of Word and Table 1 (<i>Come, Let Us Worship</i>, the KUMC)
<p><i>Eucharistic Hymn</i> <i>Responsive Readings/Opening Dialogue</i> <i>Scripture Reading</i> <i>Invocation</i> <i>Prayer of Repentance</i> <i>Words of Forgiveness</i> <i>The Peace</i> <i>Holy Communion Prayer</i> <i>Institution Narrative</i> <i>Words of Remembrance</i> <i>Invocation of the Spirit's Presence</i> <i>The Lord's Prayer</i> <i>Giving the Bread and Wine</i> <i>Eucharistic Hymn</i> <i>Thanksgiving Prayer After Communion</i></p>	<p><i>The Korean Version (The English Version)</i></p> <p><i>Invitation</i> <i>Communal Repentant Prayer (Confession of Sin)</i> <i>Individual Repentant Prayer (Silent Prayer)</i> <i>Assurance of Forgiveness (Words of Assurance)</i> <i>The Peace</i> <i>Offering</i> <i>Words of Ceremony/Opening Dialogue (The Great Thanksgiving)</i> <i>Institution Narrative (The Great Thanksgiving)</i> <i>Invocation of the Spirit's Presence (The Great Thanksgiving)</i> <i>The Lord's Prayer (Breaking the Bread in the English Version)</i> <i>Giving the Bread and Cup (Included in Breaking the Bread and Giving the Bread and Cup)</i> <i>Thanksgiving and Resolution</i></p>

두 교회가 사용하는 예문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재림의 신앙을 포함한다. FKUMC의 경우, 제정사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예문이 있다. 실제 성찬식에서 회중은 이 제정사를 단숨에 고백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과 재림을 고백할 때 성찬식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활은 기쁨인데 분위기는 엄숙했다. 또한, 성령임재의 기원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최후 승리와 함께 천

4) *Come, Let Us Worship: The Korean-English United Methodist Hymnal* (Nashville, TN: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01), 12-14, 20-22.

5) *Yemun 1 [The Ritual Texts 1]* (Seoul: The KMC Press, 2006), 55-65.

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예문이 있다. 빵과 잔의 분급예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실제 성찬식에서 집례자는 천국 잔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략은 수찬자들이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더욱 집중하게 할 수 있다.

JKCC의 경우도 비슷하다. 예문의 기념사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실제 성찬식은 그 기념사를 생략했다. 예문은 기념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지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안내는 기념사에 담겨 있는 예수의 죽음, 부활, 재림의 신앙을 고르게 강조할 수 없게 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상처 입은 마음이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쉽게 동화되고 성찬식이 상처 입은 예전에 머무르게 한다. 이렇게 성찬 예문과 실행에 있어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수동적 집단 무의식의 한’과 관련될 수 있다.

두 교회 성찬식에서 부르거나 반주된 찬송과 찬양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천 번을 불러 봐도”(조효성/전종혁 작사)이다. “주 예수 해변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강조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 받게 된다는 주제이다. 가사에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담겨있지만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영적으로 죽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른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다. 위의 찬송가는 기쁨의 분위기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성찬 예문은 천국 잔치를 말하는데 성찬 실행에서 찬송가는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 그리고 죽으심에 머물러 있었다. 성찬 예문과 실행에 있어서 불일치이다.

4장-상처 입은 예전에서 치유 예전으로 개선(Reforming a Wounded Liturgy into a Healing Liturgy)

상처 입은 예전이 치유 예전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성찬 예문과 실행이 일치되어야 한다. 불일치의 원인이 상처 입은 마음 때문이라면 그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4장은 상처 입은 예전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4장은 치유 예전의 당위성을 다양한 성찬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새예배서,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BEM)*, James F. White와 Geoffrey Wainwright의 성찬에 대한 이해를 살핀다.⁶⁾ 주요한 성찬에 대한 이해는 “감사,” “그리스도를 기억,” “성령 임재의 기원,”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희생,” “은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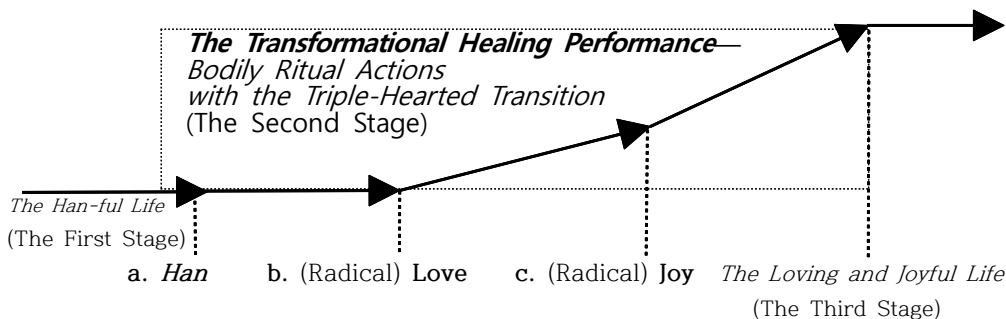
수단.”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이다. 한국 개신교 성찬식에서는 앞의 여섯 가지는 잘 이해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인 천국 잔치로써 기쁨이 넘치는 성찬식은 찾기 힘들다.

성찬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다.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순간이다. Wainwright은 성찬을 종말론과 연결한다. 그는 성찬의 이미지를 “메시아적 축제 (the messianic feast),” “천국의 첫 열매(the first-fruits of the Kingdom),”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래(the advent of Christ)”로 설명한다.⁷⁾ 성찬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선포한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다는 메시아 신앙과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성찬에 담겨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한을 풀어주고 상처 입은 삶과 마음을 치료해준다. 그렇기에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장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천국 잔치이다.

치유 예전 모델 (A Proposed Model for the Healing Liturgy)

상처 입은 예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기념을 넘어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한다. 아래의 도표는 치유 예전 모델이다.

[도표-치유 예전 모델]



6) *Se Yebaeseo*[*The Korean Methodist New Book of Worship*] (Seoul, Korea: The Publishing House of Korean Methodist Church, 2002);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James F. White,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3); James F. White, *The Sacraments in Protestant Practice and Fait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Geoffrey Wainwright, *Eucharist and Eschatology* (Akron, OH: OSL Publications, 2002).

7) Wainwright, *Eucharist and Eschatology*, 7.

치유 모델은 몸의 의례적 움직임(bodily ritual actions)과 삼중의 마음 전이(triple-hearted transition)를 통해서 가능하다. 의례는 치유의 길을 제공한다. 의례를 통해서 의례 참여자나 의례 대상은 새로운 신분/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의례는 몸의 활동을 통해서 수행된다. 수찬자는 몸의 의례적 움직임을 통해서 신령한 의례에 참여할 수 있다. “소리내기,” “손뼉치기,”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기,” “찬양하기,” 그리고 “춤추기” 등이 몸의 의례적 움직임에 해당된다. 수찬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몸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한 움직임은 수찬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

삼중의 마음 전이는 셋으로 이뤄진 마음이다. 첫째는 한이다. 한은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미 한국 개신교 수찬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 둘째는 급진적 사랑(Radical Love)의 마음이다. 급진적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사랑이다.⁸⁾ 수찬자들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을 때 이 급진적 사랑을 경험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 이때 수찬자의 상처 입은 마음은 줄어들고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과도 나뉘야 한다. 그것은 급진적 사랑을 받은 수찬자들이 당연히 행하는 실천이다.⁹⁾ 셋째는 급진적 기쁨(Radical Joy)의 마음이다. 성찬에서 수찬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천국 잔치를 맛본다. 수찬자는 메시아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¹⁰⁾ 수찬자는 성찬식에서 그들의 미래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성찬을 경험한다. 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다.

5장-상처 입은 예전에서 한풀이 예전으로 변화(Transforming a Wounded Liturgy into a *Hanpuri* Litu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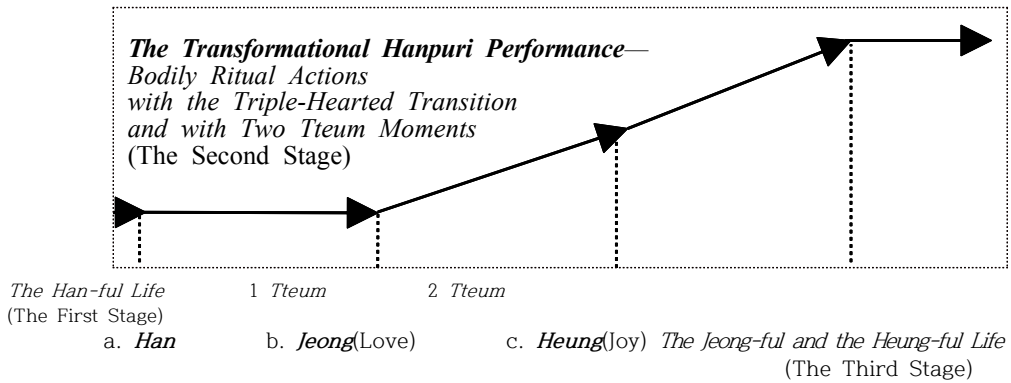
5장에서는 4장의 치유 예전의 과정을 한국의 문맥적 접근으로 발전시킨다. 치유 예전을 한풀이 예전으로, 급진적 사랑을 한국의 정서인 ‘정’으로 급진적 기쁨을 ‘흥’으로 연결해 한국 개신교 수찬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8) White,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9) Louis-Marie Chauvet, *The Sacraments: The Word of God at the Mercy of the Body*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2001), 117-27.

10) Wainwright, *Eucharist and Eschatology*, 7.

도표- 완전한 한풀이(치유) 예전 모델



완전한 한풀이 예전 모델은 4장에서 치유 모델에서 발전시킨 몸의 의례적 움직임과 삼중의 마음 전이에 ‘뜸(기다림)’을 추가한다. 예전을 치유하는 것은 한국 수찬자들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한’을 푸는 의미다. 그렇기에 ‘치유 예전’을 ‘한풀이 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몸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한국인에게 그들의 한을 푸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래와 춤이 중심이 되는 농악, 탈춤, 판소리, 창, 그리고 흥타령 등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성찬식에서도 능동적인 몸의 움직임은 상처 입은 마음을 풀게 한다.

삼중의 마음 전이에서 사랑을 정으로, 기쁨을 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정서인 ‘정’은 따뜻한 마음이며 조건 없는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이 담겨있다. 그의 희생은 사랑의 결과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신비한 순간이다. White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주심이 드러난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을 때 수찬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정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수찬자가 갖고 있던 한의 마음도 풀어진다. 마음의 전이가 한에서 정으로 경험된다.

한국인의 정서에서 ‘흥’은 급진적 기쁨이다. 이 논문은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노래와 춤을 강조한다. 농악, 탈춤, 판소리, 창, 그리고 흥타령에서 보듯이 노래와 춤은 한을 푸는 중요한 방법이다. 수찬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자신들의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찬식은 최고의 기쁨이다. 노래와 춤을 통해서 수찬자들은 그들의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 정(사랑), 그리고 흥(기쁨)으로 이뤄진 마음 전이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마음의 변화이다. 그렇기에 한의 마음에서 정의 마음으로, 정의 마음에서 흥의 마음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뜸의 순간이다. 뜸은 이전 단계와 다

음 단계 사이의 전이를 위한 기다림이다. 뜬은 새로운 단계/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뜬은 몸과 마음의 통합적 기다림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기다린다. 몸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몸은 마음과 함께 다음 단계로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뜬은 의례의 순서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관례화된 형식을 피할 수 있다. 뜬은 수찬자가의례의 각 순서를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참여하게 한다. 이 뜬은 수찬자가 이전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고 다음 단계의 새로운 마음을 기대하게 한다.

6장-치유 예전 모델 제안(A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마지막장은 몸의 의례적 움직임, 삼중의 마음 전이, 그리고 뜬을 기반으로 완전한 치유 예전 모델을 제시한다. 이 치유 예전 모델은 수찬자의 몸의 의례적 움직임을강조한다. 셋으로 이뤄진 상처 입은 마음(한),사랑(정), 기쁨(흥)의 마음이 두드러지게 구성된다. 수찬자는 의도적으로 이 치유 예전에서세 가지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논문은뜬의 시간으로 2분을 제안한다.

성찬의 치유 예전 모델

“치유 축제로 나오라”

떡과 포도주의 잔을 제단에 성찬보로 미리 덮어 놓는다.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성찬위원들은 미리 성찬대로 나온다.

초대/집례자

집례자: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먹어 주님과 하나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기쁨이 가득한 천국 잔치가 됩니다. 이 순간 어떠한 상처도 회복되는 치유의 축제가 됩니다. 이 거룩한 잔치에 여러분을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 (한)

수찬자들이 갖고 있는 상처 입은 마음에 집중한다. 아래 예문은 한국의 공동체적 상처에 대한 것이다. 아래 예문 외에 각 공동체는 그들의 집단적 상처의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설교자는 예문의 집단적인 상처 입은 마음의 내용을 설교에서 언급할 수 있다.

찬송가/다같이

새98장 “예수님 오소서” *예문에 제시된 찬송가는 새찬송가이다.

상처 입은 마음/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우리 안에 깊게 쌓여 있는 상처 입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회중: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례자: 이 사회는 오랫동안 사람의 신분을 높고 천한 그룹으로 나누고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이 차별의 경험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왔습니다.

회중: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례자: 과거에 권력자들은 한반도를 통제하고 민중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이용하고 괴롭힙니다.

회중: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례자: 전쟁으로 우리는 아팠습니다. 여전히 두 동강이 된 한반도는 아픕니다. 전쟁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가중시킵니다.

회중: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례자: 우리의 집단적 미움과 다툼은(외부 나라에 대한/한국전쟁으로) 우리의 한 맺힌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회중: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례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지금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슬픈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같이: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송/다같이

새632장 “주여 주여우리를”

뜸 1-조용한 기도 (기다림)/다같이

첫 번째 기다림의 시간이다. 수찬자는 그들의 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응어리를 풀어 주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한다. 조용한 기도와 함께 2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

뜸 1/다같이

집례자: 다함께 조용한 기도와 함께 2분 정도 기다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다림을 가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입은 마음에 집중하며 그것을 묵상합니다. 이어서 그 상처를 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을 쳐서 첫 번째 뜸의 시간을 알린다.

종을 쳐서 첫 번째 뜸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린다.

급진적 사랑(그리스도의 정)

이 부분은 정의 마음에 집중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정)에 집중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의 섭리에 집중한다. 죽음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한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두 가지 모두에 집중한다.

찬송가/다같이

새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사랑의 마음/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요 3:16; 사 61:1).

그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요3:16; 벰전 2:24; 고전 15:20).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집례자: [떡과 잔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같이: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통성기도를 통한 성령임재 기원/집례자와 회중

집례목사와 회중은 함께 통성으로 성령임재의 기도를 한다.

집례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성령임재의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낫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통성기도가 끝날 즈음에 집례자가마침기도를 한다.

집례자: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난을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먹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 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제정사/집례자

집례자: [떡을 두 손으로 들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떡을 떼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삶을 치유합니다. [떡을 내려놓는다]

집례자: [잔을 들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언약의 피는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삶을 치유합니다. [잔을 내려놓는다]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음/다같이

집례자와 보좌 위원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은 후에 회중은 앞으로 나오거나 앉은 자리에서 받아먹는다. 빵과 잔을 나눠줄 때 반주자는 새286장과 새304장을 연주할 수 있다.

집례자: [떡과 잔을 든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축제를 열어 주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됩시다.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분급자: [빵을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이 떡은 사랑입니다. [잔을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이 잔은 사랑입니다.

뜸 2-조용한 기도 (기다림)/다같이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의 사랑(정)을 묵상하고 기쁨의 마음(흥)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수찬자는 조용한 기도와 함께 2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 반주도 잠시 멈춘다.

뜸 2-조용한 기도/다같이

집례자: 다함께 조용한 기도와 함께 2분 정도 기다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제 사랑에서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종을 쳐서 뜸의 시간을 알린다.

종을 쳐서 뜸이 끝났음을 알린다.

급진적 기쁨(그리스도와 함께 흥)/다같이

이 부분은 세 번째 마음, 기쁨(흥)에 초점을 맞춘다. 부활하셔서 죽은이의 첫 열매가 되신 기쁨에 초점을 둔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한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축제의 시간을 갖는다.

기쁨의 마음/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의 부활도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다같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삶의 아픔도 이겨낼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올려 드립니다.

기쁨의 춤(흥이 가득한 춤)/다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 후에 흥이 가득한 춤을 춘다. 이때 찬양을 함께 부르고 모든 악기를 사용한다. 모두의 마음이 기쁨에 이르도록 집례자와 회중은 준비한다. 흥겨운 축제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집례자: 다함께 춤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축제에서 춤추고 계십니다.

다음의 찬양을 다함께 부를 수 있다. “오 이 기쁨”과 새173장“다 함께 찬송 부르자”

감사와 결단의 기도/집례자와 회중

성만찬을 통해 주신 주님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하며 성찬 이후의 삶에 대한 다짐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한다.

집례자: 이제 다같이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다같이: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과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낙담이 아닌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성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표 2]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에 암시된 이상적인 목회자상"*



이기운 (Stellenbosch University Ph. D.)

I. 들어가는 글

21세기 한국 교회는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여러 극복해야 할 사안들을 마주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 변화(예를 들어, 출생률, 인구증가율 감소)가 일어나는 가운데 극명한 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회적인 사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책임감은 커져가지만, 그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문제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목회자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안에 발표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10, 2013, 2017년)에 의하면 5점을 척도를 기준으로 각각 2.58점, 2.62점, 2.55점으로 환산되는데, 이는 “신뢰도 하지 않고 불신도 하지 않는 수준”인 3점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신뢰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설문 조사 중 한 가지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2010년에 발표된 한국 교회 신뢰도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교인보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변해야 한다(28%)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2017년 여론 조사 결과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

*본 발제는 필자의 박사 논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에 대한 주해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거나 발췌한 것이 아닌, 필자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요구되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제시한 것이다.

1) ‘(사)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 및 집계한 『2010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https://cemk.org/resource/2524/>; 『2013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https://cemk.org/resource/2613/>; 『2017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https://cemk.org/resource/2699/>을 참조하라.

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윤리 및 도덕성(49.4%), 물질 추구(12.5%), 사회 현실 이해 및 참여(11.2%),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9.3)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목회자들의 자질과 인격 및 도덕성 함양은 사회와 교계에서 주목을 받아온 사안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론 및 교회 성장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던 정도에 비해 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21세기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본 논문은 1세기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며 양육하는 가운데 보여준 사도 바울의 목회적 본보기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목자상에 대해서 상고해본다.

특별히, 본 연구는 바울의 ‘자기변호’ 본문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에서 암시된 목회자상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바울 서신 연구 가운데 이 본문은 바울의 적대자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자전적 진술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한 자기변호인지 암묵적인 권면인지에 대한 논의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²⁾ 전통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의 기록 목적에 관해서 적대자들을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변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데살로니가전서 학자들은 이 본문에 헬라 철학자들의 글에 대한 인유(allusion)를 주목하면서 그의 자전적 진술을 달리 해석한다. 그들은 바울이 실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변호한다기보다는 헬라 철학자의 전통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암시적 권면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³⁾ 본 연구는 말허비를 필두로 한 학자들의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 비평적으로 접근한 후,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어조 및 논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자전적 진술이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소명에 대한 충실함과 목회 현장에서 그가 보여준 진정성에 호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21세기 한국 교회에 요구되는 목자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A. J. Malherbe, “‘Gentle as a Nurse’: The Cynic Background to I Thess II”, *NovT* 12 (1970): 203-204; J. A. D. Weima, “An Apology for the Apologetic Function of I Thessalonians 2:1-12”, *JSNT* 68 (1997): 73-74를 참조하라.

3) C. A. Wanamaker, *The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0), 94; S. Walton, “What Aristotle to Do with Paul?: Rhetorical Criticism and 1 Thessalonians”, *TynBul* 46/2 (1995): 244-249; M. W. Holmes, *1 & 2 Thessalonia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8), 60; A. Smith, *Comfort One Another: Reconstructing the Rhetoric and Audience of 1 Thessaloni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78.

II. 펴는 글

1. 바울의 자전적 진술(살전 2:1-12)은 암시적 권면인가?

최근 고대 수사학을 통하여 바울의 서신 작성, 장르, 형태, 구조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학은 일종의 언변을 통한 설득의 기술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장르로 구분한다.⁴⁾ 첫째로, 심의적 장르(deliberative genre)로서, 이는 청중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법정적 장르(judicial genre)로서 주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과거의 행위나 결정이 정당했는지 또는 부당했는지를 가려냄으로써 변호하거나 고발하는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 셋째로, 제의적 장르(epideictic genre) 청중들에 대한 칭찬과 비난을 통해 어떤 중요한 가치와 관점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수사적 장르의 분류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주로 네 가지 장르로 분류된다고 본다.⁵⁾ 위에서 나열된 수사적 장르 가운데 법정적 장르는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여겨지며, 학자들은 대개 심의적 장르 또는 제의적 장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장르에서 벗어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권면적 장르(paraenetic genre)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어떠한 장르에 끼워 맞추어 읽기보다는 서신 그 자체의 장르적 독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a letter *sui generis*).

본 연구의 논의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장르는 권면적 장르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예일 대학교 신약학자, 아브라함 말허비(Abraham J. Malherbe)는 데살로니가전서를 바울 당시 널리 알려진 서신 작성의 특정 유형 중에서 권면적 장르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⁶⁾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1-3장이 4-5장의 본격적인 권면을 위한 긴 도입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다른 바울 서신에서 짧게 나타나는 감사부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3장까지 확장되었다고 본다. 말허비는 데살로니가전서 1-3장이 “고대 서신에서 우정을 위한 실천 지혜적 요소(the philophrnetic element)”를 내포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저자와 수신자 간의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와 같은 권면적 서신에서는 권고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한다.⁷⁾ 감사부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서신의 주제를 소개하는 것인데, 그는 2장 1-12절이 이러한 서

4) Aristotle, *On Rhetoric*, 1.3.10-15.

5) Walton, “What Has Aristotle to Do with Paul?”, 233-239.

6) Pseudo Libanius, *Epistolary Style* 52를 참조하라.

7) A. J. Malherbe, “Exhortation in First Thessalonians” *NovT* 25 (1983): 241.

신의 구성에 잘 들어맞는다고 이해한다.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해 우정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4-5장의 직접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다.⁹⁾

말허비의 논문, “*Gentle as a Nurse: The Cynic Background to 1 Thess II*”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이 암시적 권면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본문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연설가 성향의 견유학파 철학자”(the orator-turned-Cynic philosopher)였던 디오 크리소스툼(Dio Chrysostom)이 사용한 언어적 병행들, 그레코-로마 세계에서의 토포스 사용, 그리고 그레코-로마 시대의 수사학 전통과 바울의 자전적 진술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한다.¹⁰⁾ 말허비는 디오 크리소스툼이 네 가지 담화록(*the Olympic Oration, the oration to Alexandria, the first oration to Tarsus, and the oration to Celaenae*)에서 개인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던 돌팔이 철학자들과 디오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청중에게 스스로

8) A. J. Malherbe,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133-34.

9) A. J. Malherbe, “Exhortation in First Thessalonians” *NovT* 25 (1983): 241; A. J. Malherbe, “Hellenistic Moralism and the New Testament” *ANRW* 2.26.1 (1992): 291-292.

10) 토포스는 (τόπος) “장소”라는 의미로 최근 헬라 윤리철학과 신약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토포스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으로 어떤 논의를 다루는 형식화된 방법, 즉 “논의의 주제, 어떤 논의의 수사학적 패턴, 문학적 주제, 모티프, 클리셰, 또한 윤리적이거나 지식적인 주제”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현상들로 막연하게 정의내리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학자들이 토포스에 대해 모호하거나 피상적 개념을 갖고 있거나, 그레코-로마 시대에 국한된 토포스의 개념을 현대화시키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범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왔다[J. C. Thom, “‘The Mind is Its Own Place’: Defining the Topos” in *Early 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Comparative Studies in Honor of Abraham J. Malherbe*, eds. J. T. Fitzgerald & T. H. Olbricht & L. M. White (Leiden: Brill, 2003, 558)]. 스텔렌보쉬 대학의 고전학부 교수, 요한 톰은 (2003:566) 신약 본문 연구와 관련된 토포스의 개념을 그레코-로마 시대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서, “정돈되거나 규정된 인지 공간의 관념이 모든 토포스 사용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제안한다(J. C. Thom, “‘The Mind is Its Own Place,’” 566). 더 나아가, 그는 토포스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첫째로, “논리적 또는 수사학적 토포스,” 즉 “생각의 체계나 논의의 맥을 제공하는 전략적 토포스,” 둘째로, “문학적 토포스”로서 그레코-로마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는 “문학적 주제나 모티프들”의 반영, 셋째로, “윤리적 또는 철학적 토포스”로 분류한다(J. C. Thom, “‘The Mind is Its Own Place,’” 566-567). 본 연구에서 말허비가 논의한 바울의 토포스 사용은 세번째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다. 윤리적 또는 철학적 토포스는 여러가지 목록, 예를 들면, 결혼, 우정, 교육과 훈육, 부와 가난, 경건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는데, 그레코-로마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성적, 인지적, 문화적으로 이미 공유되고 연결된 점점이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레코-로마 시대적 배경 속에 살아가던 바울에게도 토포스에 대한 인지와 사용이 그의 저작 속에 반영되어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최근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적인 철학자임을 강조하는 본문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의 중요한 배경으로 제안하였다.¹¹⁾ 위에 언급된 문서들에서 디오 크리소스툼의 담화는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대적자들을 대응하는 정황 안에서 발화된 것이 아니라, 돌팔이 철학자들과의 진정한 철학자 간의 대조를 통하여 청중에게 자신이 이상적인 철학자의 모범으로 소개한다. 말허비는 디오 크리소스툼과 바울의 권면적 네러티브 간의 유사점을 주목하면서, 디오가 실제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유사성에 근거하여 바울 역시 자신을 청중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긴급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자기변호 가능성을 배제한다.

말허비는 디오 크리소스툼과 바울 사이에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적 유사성을 비교 연구하면서, 그레코-로마 시대에 헬라 도덕 철학자들이 청중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육할 때 사용하던 수사적 전통을 바울이 사용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¹²⁾ 일례로 디오와 바울의 유사한 단어 사용이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³⁾

디오 크리소스툼	바울
<p>ἄνδρα δὲ λαβεῖν καθαρως καὶ ἀδόλως παρρησιαζόμενον (<i>Or.</i> 32.11) 그러나 결백하고 악의가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쉽지 않다)</p>	<p>ἡ γὰρ παράκλησις ἡμῶν οὐκ ἐκ πλάνης οὐδὲ ἐξ ἀκαθαρσίας οὐδὲ ἐν δόλῳ(살전 2: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p>
<p>ἀλλὰ κολακεία καὶ ἀπάτη κρατεῖ παρ' αὐτοῖς (<i>Or.</i> 32:26) 그러나 아첨과 속임수는 그들 가운데 만연한다.</p>	<p>Οὔτε γὰρ ποτε ἐν λόγῳ κολακείας ἐγενήθημεν, καθὼς οἴδατε, οὔτε ἐν προφάσει πλεονεξίας (살전 2: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p>
<p>εἰ δ' ὡς φιλόσοφοι ταῦτα πράττουσι κέρδους ἕνεκεν καὶ δόξης τῆς ἑαυτῶν (<i>Or.</i> 32:10) 그러나 만약 철학자들이 마치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p>	<p>οὔτε ζητοῦντες ἐξ ἀνθρώπων δόξαν οὔτε ἀπ' ὑμῶν οὔτε ἀπ' ἄλλων (살전 2:6)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p>

11) Malherbe, "Gentle as a Nurse," 205: 217.

12) Malherbe, "Paul: Hellenistic Philosopher or Christian Pastor?," 89.

13) Malherbe, "Gentle as a Nurse," 216-217; Malherbe, "Paul," 89-92; A. J. Malherbe, *Moral Exhortation, A Greco-Roman Sourcebook*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24-26.

여기에서 바울과 디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연설자의 도덕성과 솔직함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며 훈육할 자격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¹⁴⁾

말허비는 바울은 자신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윤리적인 면에서 닮아가야 할 본보기로 제시한다고 주장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이 그의 자전적 진술에서 표제로서 역할 한다고 보았다.¹⁵⁾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그는 바울의 자전적 진술 안에 포함된 여러 윤리적 덕목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문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바울의 자전적 진술에 내포된 내재된 권면(implicit paraenesis) 4-5장의 본문에서 명시적인 권면(explicit paraenesis) 연결 및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부도덕에 관해서: 2:3/4:7; 사랑에 관해서: 2:8/3:12; 4:9; 5:13; 수고 또는 노동에 관해서: 2:9/4:11; 흠 없음에 관하여: 2:10/5:23; 경계함과 덕세움에 관하여: 2:11/5:11; 권고에 관하여: 2:12/5:11; 훈계 또는 징벌: 2:11/4:6; 위로에 관하여: 2:12/4:18; 5:14; 하나님의 부르심과 윤리적 삶과의 연관성: 2:12/5:23-24.”¹⁶⁾ 이러한 면에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1-3장을 4-5장의 직접적인 권면을 위한 긴 도입부로 제안하였고, 바울의 자전적 진술(2:1-12)을 전체 서신 내에서의 직접적 권면을 위한 예비적 단계 또는 암시적 권면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자전적 진술(2:1-12)에 언급된 덕목들과 권면부(4-5장)에 나오는 덕목들을 비교해보면, 전자가 데살로니가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¹⁷⁾ 게다가 1장 6절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받은 고난을 본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울이 보여준 덕목을 본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¹⁸⁾

2. 바울의 자전적 진술(살전 2:1-6)의 목적과 배경

데살로니가전서의 긴 도입부와 바울의 자전적 진술이 권면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기여한 중요한 공헌들 가운데 한 가지는 1970년대 양식비평 학자들과 편집비평학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부분별로 각기 다른 전승에 포함시킴으로 와해되었던 서신서의 통일성이 확립된 것이다. 말허비를 필두로 하여 그와 같은 견해를 따르는 여러 데살로니가전서 주석가들은 그레코-로마 시대에 널리 인

14) Malherbe, “Gentle as a Nurse,” 90.

15) Malherbe, “Hellenistic Moralism and the New Testament,” 290.

16) Malherbe,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156.

17) 이와 관련되어 S. Kim, “Paul’s Entry (εἰσοδος) and the Thessalonians’ Faith (1 Thessalonians 1-3)” *NTS* 51/4 (2005), 528-529에서 제기된 말허비에 대한 반론을 보라.

18) S. Kim, “Paul’s Entry (εἰσοδος) and the Thessalonians’ Faith,” 531.

식되었던, ‘서신은 일종의 기록된 의사소통’이라는 전제로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바울의 논지 전개와 흐름의 단계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으로써 데살로니가전서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수사학적 결과물임을 증명해 내었다. 바울의 자전적 진술(살전 2:1-12) 서신의 후반부에 목표했던 본격적인 권면의 예고적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서신 전반에 걸친 바울의 권고적 뉘앙스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노력과 공헌은 분명히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코-로마 세계의 문화적, 사회적, 수사적 전통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 사이의 비교 연구를 통해 바울의 대적자들의 존재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레코-로마 시대의 헬라 철학자들과 바울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1세기의 중요한 사상적, 관습적 맥락을 간과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¹⁹⁾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한편으로 그레코-로마 세계에도 익숙했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 연구만으로 과연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변호적 어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바울의 자전적 진술을 암시적 권면적인 기능만을 부각시키는 학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반론의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바울의 자기변호

김세윤은 2장 1-12절에 암시된 1세기 헬라적 배경을 인정하는 한편, 본문이 변호적 진술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²⁰⁾ 그는 εἰσοδος(에이소도스, 1:9; 2:1)가 당시 소피스트들의 아침과 거짓된 수사학적 속임수를 사용하던 관습을 상기시킨다는 윈터(Winter)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바울이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았다.²¹⁾ 그는 윈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에 자기 변호적 요소들의 존재를 부정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윈터가 “그(바울)를 하나의 선생쯤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인식 때문에 그의 사역을 잘못 판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바울의 진술에는 일종의 긴급성이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면서 윈터가 본문에 암시된 정황적 긴급성을 은연중에 인정한다고 생각한다.²²⁾ 김세윤은 더 나아가 2장 13절-3장 10절에 드러난 바울의 염려와 디모데의 소식으로 인한 기쁨에 주목하면서, 대적자들이 바울을 모함하려는 어떤 실제 상황을 암시한다고 강조한다. 특별히, 김세윤은 3장 5절에 언급된 “시험

19) ‘바울이 과연 얼마나 전문적인 수사학적 훈련을 받았는지,’ ‘서신 기록에 관해서 토포스에 대한 호소가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바울이 헬라 철학자의 인유를 의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20) S. Kim, “Paul’s Entry (εἰσοδος) and the Thessalonians’ Faith,” 525.

21) B. W. Winter, “The Entries and Ethics of the Orators and Paul (1 Thessalonians 2.1-12)” *TynBul* 44/1 (1993): 57-60.

22) Winter, “The Entries and Ethics of the Orators and Paul,” 72.

하는 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철회하도록 꾀박을 하고 회유하는 자들로 제시한다.²³⁾

둘째로, 와이마(Weima)는 다섯 가지 증거를 통하여 본문이 바울의 자기 변호적 진술임을 주장한다.²⁴⁾ 첫째로, 그는 ‘감사부’인 1장 2-10절은 서신에 나오는 전반적인 쟁점들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전 사역에 대한 언급은 바울이 참된 사역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변호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둘째로, 2장 17절-3장 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부재에 관하여 설명하고 격려한 사실은 2장 1-16절의 이전 사역에 대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οὐκ ... ἀλλὰ([우크 ... 알라], 2:3-4, 5-7) 구조를 통하여 드러나는 대조적 진술은 바울의 자기 변호적인 의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이 서신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대조적 진술(1:5, 8; 2:17; 4:7, 8; 5:6, 9, 15)과 2장 1-8절의 자전적 진술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잦은 사용(특히 2:3-4에서 3회, 2:5-6에서 5회)은 바울이 단순히 자신을 “본받을 자”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고발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섯째로, 청중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수사적 또는 담화적 장치들(예를 들어, καθὼς οἴδατε[카토스 오이다테], 2:2, 5 또는 καθάπερ οἴδατε[카따펠 오이다테], 2:11; θεὸς μάρτυς[떼오스 마르투스], 2:5, ὑμεῖς μάρτυρες καὶ ὁ θεός[히메이스 마르튀레스 카이 호 떼오스], 2:10)에 비추어 볼 때 청중의 1차적인 기억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자기를 변호하는 바울의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소위 거울 독법(mirror-reading)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통하여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난을 했는지 본문에 암시되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거울 독법”을 사용함으로써 잠재적인 대적자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은 학자들 가운데 널리 퍼져있다. 이는 본문 자체에서 바울과 대적자들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자의적 주석(eisgesis)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은 이러한 “거울 독법”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²⁶⁾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에 대한 반복적인 호소(2:1-6)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

23) Kim, “Paul’s Entry (εἰσοδος) and the Thessalonians’ Faith (1 Thessalonians 1-3),” 526.

24) J. A. D. Weima, *1-2 Thessalon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14), 122-124.

25) K. P. Donfried, *Paul, Thessalonica, and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2002), 94.

26) 거울 독법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확인하려면 J. M. G. Barclay, “Mirror-Reading a Polemical Letter: Galatians as a Test Case” *JSNT* 31 (1987):

에 퍼져있던 부정적인 견해들을 겨냥한 것으로 봐도 이상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신의 방문을 헛된 것(2:1)으로 여기고, 자신의 권면을 “간사함,” “부정,” “속임수”(2:3)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방하던 대적자들에게 대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채 다가갔으며(2:5),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했다는 대적자들의 고발을 암시하면서 그의 εἰσοδος(에이소도스, 2:1)가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임을 변호한다.

2) 바울의 대조적 진술에 암시된 대적자들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의 감사부들은 대개 독자들에게 집중된 반면(예를 들어, 독자들을 향한 문안과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전에 행했던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 가운데 그가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반복하여 강조한다.²⁷⁾ 피터 오브라이언(Peter O'Brien)이 주장했던 것처럼, 고대 서신의 감사부는 서신 전체의 중심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²⁸⁾ 이 감사부에서 바울이 이전 사역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태도에 대한 반복적인 상기는 데살로니가전서 전반에 걸쳐 자기 변호적 성향이 짙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의 “자기변호”의 목적은 단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초기 선교사역에 대적자들의 모함과 꾀임과 비난으로 인해 발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이전 선교 사역의 진정성에 호소하기 위함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초기 데살로니가 방문과 선교 사역에 관한 기억들을 편지 서두에 기록하면서 대조적 표현을(“A가 아니라 B”이다) 자주 등장시킨다. 이러한 대조법을 통해 바울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여 변호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⁹⁾ 말허비를 비롯한 학자들은 ‘대조적 표현’이 그레코-로마 시대에서 발견되는 흔한 수사학적 장치였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중된 나머지 적대자들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을 간과하는데, 과연 본문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한 암시를 반영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오히려, 그레코-로

74; J. A. D. Weima, “An Apology for the Apologetic Function of 1 Thessalonians 2:1-12”, 93; D. A. Carson, “Mirror-Reading with Paul and against Paul: Galatians 2:11-14 as a Test Case,” in *Studies in the Pauline Epistles: Essay in Honor of Douglas J. Moo*, eds. M. S. Harmon & J. E. Smith (Grand Rapids: Zondervan, 2014), 99를 참조하라.

27) Weima, *1-2 Thessalonians*, 122.

28) P. T. O'Brien, *Introductory Thanksgivings in the Letters of Paul* (Leiden: Brill, 1977), 15

29) T. Holtz, “On the Background of 1 Thessalonians 2:1-12” in *The Thessalonians Debate*, ed. K. P. Donfried (Grand Rapids: Eerdmans, 2000), 72; Weima, *1-2 Thessalonians*, 123.


마 수사학적 기법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는가? 독자들은 바울이 왜 자전적 성격이 짙은 2장 1-6절에서 대조법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져야 한다. 홀츠가 관찰한 바와 같이, 바울의 대조적 표현들 가운데 긍정적 진술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수사학적 공식화의 반복이 아니다.³⁰⁾ 오히려, 이 기법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령, 말허비의 주장대로 돌팔이 철학자와 참된 철학자의 대조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 수사적 기술이 암시적 권면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수사학적 기법 사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정황적 유사성에까지 그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한가? 사실 그레코-로마 시대의 전통과 바울을 연관 짓는 비교 연구는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동시에 찾는 접근이다. 그러나 디오와 바울에게 나타난 수사기법은 정황적 유사성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수사학적 기법 사용에 대한 유사성 그 자체는 대적자들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다.³¹⁾

이 대조적 진술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한 간접적 묘사와 함께 그들을 고발하면서 스스로 참된 복음의 사역자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이다.³²⁾ 데살로니가전서 2장 3-4절을 일례로 들어보면, 단순한 수사학적 기법으로만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참된 복음의 사역자와 대조되는 특징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평가는 실제로 누군가가 바울을 향한 실제적인 비난을 암시하며 그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3 ἡ γὰρ παράκλησις ἡμῶν
(헤 가르 파라클레시스 헤몬)

왜냐하면 우리의 권면은



- οὐκ ἐκ πλάνης
(우크 에크 플라네스)
간사함에서도 아니고
- οὐδὲ ἐξ ἀκαθαρσίας
(우데 에크스 아카타르시아스)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 οὐδὲ ἐν δόλῳ
(우데 엔 돌로)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30) T. Holtz, "On the Background of 1 Thessalonians 2:1-12," 72.

31) G. D. Fee,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9), 55.

32) Weima, *1-2 Thessalonians*, 124.

4 ἀλλὰ καθὼς δεδοκιμάσαμεθα ὑπὸ τοῦ θεοῦ πιστευθῆν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알라 카포스 데도키마스메따 휘포 투 떤우 피스튀떼나이 토 유양겔리온)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임받기위해 하나님에 의해 검증된 것처럼
οὕτως λαλοῦμεν,
(후토스 칼루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노니

↑ οὐκ ὡς ἄνθρωποις ἀρέσκοντες
(우크 호스 안뜨로포이스 아레스콘테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 ἀλλὰ θεῷ τῷ δοκιμάζοντι τὰς καρδίας ἡμῶν.
(알라 떤우 토 도키마존티 타스 카르디아스 헤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함이다.

물론, 이 본문 자체를 통하여 적대자의 존재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은 대적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뿌리내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도록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였던 정황을 암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청중들을 기만하는 거짓 교사들 가운데 하나로 폄하했음을 암시한다.³³⁾

사실, 본 연구는 바울이 디오 크리소스툼이 자신과 돌팔이 철학자들 간의 구별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성에 어필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이러한 인유를 통하여 실제 상황과 수사적 기술 사이를 구분 지으려는 시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는 해석을 비평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데살로니가전서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바울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돌팔이 철학자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시키면서,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요인과 목적을 하나님과 결부 짓는다. 바울의 자기 진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의 본문에 대한 담화적 분석을 통하여 드러난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가 전한 복음은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시한다. “하나님의 복음”(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θεοῦ[토 유양겔리온 투 떤우])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총 5회 등장하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집중적으로 발견된다(막 1:14; 롬 15:16; 살전 2:2, 8, 9). 문법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소유격은 주어적 소유격(subjective genitive)로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는 근원의 소유격(genitive of origin)으로서 “하나님에게 근원을 둔 복

33) Kim, “Pual’s Entry and the Thessalonians’ Faith”, 527.

음”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빌립보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바울이 고난 받고(προπαθόντες[프로파톤테스]) 능욕을 당했다(ὑβρισθέντες[휘브리스θέν테스])는 사실을 2장의 서두에 위치시킨 것은 심의적(deliberative)이다. 3절의 γὰρ(가르)는 앞 절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함으로 바울이 자신을 당시 떠돌이 철학자들의 태도(간사함, 부정, 속임수, 사람을 기쁘게 함)와 동일시하는 대적자들의 비방에 대응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절의 대조적 진술(A가 아닌 B)에서 긍정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방문 동기는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신의 소명 때문이었다(롬 15:16 참조). 그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갈 1:10 참조).

3)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 재구성

더 나아가, 바울이 자기 변호적 진술을 했다는 사실은 배경 연구를 통하여 조금 더 확고해질 수 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며 자기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선교에 대한 서술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17장 1-14절의 기록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16절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1-3장에 걸쳐서 언급된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비춰볼 때, 교회 내부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5-7절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을 찾아와서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읍장들(πολιτάρχας[폴리타르카스])에게 고발하는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 핍박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 했지만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읍장들 앞으로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고발한다.

이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언급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언급된 “동족”(συμφυλετών[숨필레톤])이라는 표현은 위에 언급된 네러티브와 관련하여 바울이 염두에 둔 대적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신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이 단어를 “민족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동일한 데살로니가 시민들로부터 받는 핍박이었을 것이다.³⁴⁾ 한편,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지역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대적자들은 데살로니가 시민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34) T. D. Still, *Conflict at Thessalonica: A Pauline Church and Its Neighbours*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1999), 218-224.

유대인 핍박자들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³⁵⁾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 용어가 지역적인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³⁶⁾ 게다가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 동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유대인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³⁷⁾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은 핍박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시도하기에는 사도행전에서 제공하는 데살로니가 선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사도행전 17장 5절은 사도들/데살로니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충돌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한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16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1세기의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사도행전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2장 14-16절에 언급된 예수님과 당시 기독교 선지자들의 죽음,³⁸⁾ 그리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뢰아로 옮겨갔던 사건은 모두 유대인의 박해에 의한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5-10절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암시된 대적자들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2차 자료이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15절 사이의 상관관계 추적은 의문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유대인들로 인해 야기된 소동은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동족”(“συμφυλέτης”[숨플레테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긴밀한 유착 관계 속에서 핍박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⁹⁾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행 17:4)이 바울과 실라를 따름으로 복음 선포를 통한 결실이 맺어지고, 이로써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진행했던 바울이 위협적 존재로 다가왔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규례와 전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성취적 관점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바울의 주장에 반감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잠재적 개종자이자 재정적, 사회적 지원자로 여겼던 이들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을 향

35) R. Riesner, *Paul' Early Period: Christology, Mission Strategy, Theology*, trans. D. Stott (Grand Rapids: Eerdmans, 1998), 352; M. Tellbe, *Paul between Synagogue and State: Christian, Jews, and Civic Authorities in 1 Thessalonians, Romans, and Philippian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2001), 113-115; Weima, *1-2 Thessalonians*, 168.

36) BDAG “συμφυλέτης”

37) Fee,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94.

38) 본 논문은 15절의 τοὺς προφήτας(투 프로페타스, “선지자들”)을 핍박과 죽음 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아끼지 않았던 기독교 선지자들로 이해한다(행 15:25-32). Boring, *I & II Thessalonians*, 103-104를 참조하라.

39) G. L. Green,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142.

한 적개심으로 이어졌을 것이다.⁴⁰⁾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유대인들과 현지 데살로니가인들 간의 협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스틸(Still)이 주장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정치가들 또는 권력가들은 유대 종교에 관용적 태도를 지녔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권위를 보호해주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을 핍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권력과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다.⁴¹⁾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유대인들이 이미 형성된 데살로니가의 권력자들과의 유대관계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전통적 유대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급진적 관점을 가진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행 13:50; 14:2, 5, 19; 17:5, 13; 21:27 참조).

3. 바울의 영혼 돌봄 (살전 2:7-12)

지금까지 본 연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이자 목회자로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주변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사도의 고난을 본받아 마게도나와 아가야(그리스 전 지역)에 걸쳐 신앙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바울은 복음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의 진정성으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에 호소한 자기변호이다. 이러한 주장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12절에 암시된 ‘영혼 돌봄’이라는 중요한 목회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12절의 거시적인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6절은 부정어 οὐτε(5회 사용)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적자들의 비방에 대응하는 부정문이며 7-12절은 역접을 나타내는 전치사 ἀλλά가 이끄는 긍정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절의 ἀλλά(알라)절이 이끄는 긍정문은 바울 자신의 진정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데, “부모” 은유가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이 부모 은유는 바울의 영혼 돌봄이라는 목회적 본질을 암시하며, 이는 2장 1-6절에서 보여주는 논지의 흐름과 이어진다. 다른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고전 9:1-6; 고후 10-13장 참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의도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살전 2:7). 분사구문 δύναμα(듀나마이)는 양보(concessive)로 문법적 기능을 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자신의 지위의 중요성(ἐν βάρει[엔 바레이])을 부각시킬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⁴²⁾ 흥미롭게도,

40) J. B. Polhill, *Act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2), 361; Still, *Conflict at Thessalonica*, 70.

41) Still, *Conflict at Thessalonica*, 225.

7절에는 ἀπόστολος(아포스톨로스)의 복수형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오는 복수형이 가리키는 부류와는 다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의 복수형이 정작 사도가 아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특사” 또는 보냄 받은 “선교사”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복수형의 사용이 마치 본 서신의 저자가 세 사람(바울, 실라, 디모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최근 학자들은 “서간체적 복수” 사용(“우리”)의 관습에 비추어 이를 이해한다. 고대의 권면적 서신은 한 명의 저자가 복수형 저자 형태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청중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므로써 따듯한 어조를 사용하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⁴³⁾ 다른 서신들과 달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는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ἀπόστολος가 특정 사도 계층을 가리키지 않는 다른 서신의 경우(고후 8:23; 빌 2:25)에 비추어 볼 때,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방문의 특정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울이 이러한 언급을 할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조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한다는 “사도적 권위”에 대한 자기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살전 1:6; 2:4; 4:15).

1) 부모 은유와 영혼 돌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조우로 의하여 입증된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부모(τροφός[트로포스], πατήρ[파텔])의 자녀 사랑과 그와 동반되는 헌신과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모습에 대하여 강조한다.⁴⁴⁾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자체가 내포하는 부정적인 함의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

42) 개역 개정 4판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은 “ἐν βάρει”(엔 바레이)에 대한 뉘앙스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헬라이어 단어 βάρος는 기본적으로 “무게”와 “짐”을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BDAG, “βάρος” ②).

43) Malherb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88.

44) 개역개정 4판에 “유모”라고 해석된 단어가 νήπιος(“영아” 또는 “순진무구한”)인지 ήπιος(“유순한”)인지에 관하여 사본학적으로 논란이 있다. 말허비는 당시 연설이 거칠어야 설득의 효과가 있다는 견유헌파와 달리, 헬라철학 전통의 담대한 연설은 유모가 아이를 다루듯이 청중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 연설을 조절해야 한다는 전통을 바울이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 J. Malherbe, *Paul and the Popular Philosophers* (Minneapolis: Fortress, 1989), 136-145를 보라. 외적 증거로 볼 때 많은 필사본들이 ήπιος를 지지하지만, 한편으로 사본학적으로 중요한 필사본들은 νήπιος를 지지한다(Ⓢ⁶⁵ Ⓚ^{*} B^{*} C^{*} D^{*}). 사실 이러한 사본학적 논의는 본 논문의 지면상 한계가 있으며 연구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문맥상으로 볼 때, 헬라이어 구두점이 7절에 ἀπόστολοι에 놓여있으며 ἀλλά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νήπιος(“영아” 또는 “순진무구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유모 또는 어머니 은유와의 연관성이 확립될 수 있다. G. S. Shogren, *1 & 2 Thessalonians: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99-103를 참조하라.

모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담화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말허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12절의 진술이 그레코-로마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이상적인 철학자의 영혼 돌봄 실천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⁴⁵⁾ 특이점은 바울의 동시대 이상적인 도덕 철학자들이 “영혼 돌봄”을 실천할 때 부모 은유를 자주 언급한 것이다.

바울이 보여준 목회적 돌봄의 방법은 동시대 도덕 철학자들의 “영혼 돌봄”의 전통과 유사성을 보인다. 바울이 자신의 목회 사역을 유모와 아버지의 심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그가 의식적으로 그들의 영혼 돌봄 전통을 활용하였던 것이 분명하다.⁴⁶⁾

데살로니가인들이 영혼 돌봄의 전통과 부모 은유 간의 연관성에 대해 어느 정도 친숙했을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여, 바울이 당대 영혼 돌봄 전통을 자신의 담화에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⁴⁷⁾ 물론, 바울을 당대 헬라 도덕 철학적 전통에 종속시키거나, 비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가르침을 단순히 그 시대적 관습으로 국한하거나, 단순한 반복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사성의 발견 그 자체가 바울이 그 전통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⁴⁸⁾ 말허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지만, 이상적인 도덕 철학자들이 특정 개인들을 어떠한 미덕의 모범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울을 이상적인 철학자의 전형으로 묘사했다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바울은 자전적 진술에서 스스로를 철학자가 아닌 목회자로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여러 덕목을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그리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울의 자전적 진술은 “영혼 돌봄”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다만 바울이 보여주는 영혼 돌봄 실천을 이해할 때 본문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데살로니가 선교 가운데 바울의 어떠한 면모가 강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바울의 헌신적 사랑

영혼 돌봄의 실천에서 중요한 덕목은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45) A. J. Malherbe, *Paul and the Popular Philosophers*, 55-56; 67-144를 참조하라.

46) A. J. Malherbe, *Paul and the Thessalonians: The Philosophic Tradition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87), 58.

47) Malherbe, *Paul and the Thessalonians*, 40.

48) B. S. Rosner, “The Household Setting of Paul’s Pastoral Practice and Its Biblical And Jewish Roots” in *Paul as a Pastor*, eds. B. S. Rosner, A. S. Malone, & T. J. Burke (London: T & T Clark, 2018), 8.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다. 외적 및 내적인 사본학적 증거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νήπιος*로 결정한다면, 사실 ‘어린 아이가 되었다’라는 의미에 관하여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대체적으로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뉘앙스를 나타내는데(고전 3:1; 13:11; 엡 4:15),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며 문맥에 비추어볼 때 “악의가 없는” 또는 “순진한”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⁴⁹⁾ 이러한 의미는 7절 상반절의 비유에 대한 특징 또는 역할을 소개하는 7절 하반절의 *ὡς ἔάν*(호스 에안)절에 의해 더욱 명확해진다. 즉, 유모 또는 어머니는 대가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자녀를 돌본다.⁵⁰⁾ 고대 헬라 사회에서 유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여러 그레코-로마 문헌은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이상적인 유모상을 드러낸다.⁵¹⁾ 한편,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고 젖을 먹임으로써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창 21:7; 삼상 1:21-23; 시 22:9).⁵²⁾ 이사야 49장 15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하기도 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보다 바울이 사용한 유모 또는 어머니 은유는 민수기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한 역할을 상기시킨다.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흥미롭게도,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 은유가 사용되었지만, 자녀를 품는 모습과 젖 먹는 아이에 대한 언급은 어머니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⁵³⁾ 바울은 이상적인 유모 또는 어머니상을 통하여 영혼 돌봄을 실천하며, 이로써 그가 보여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마치 유모 또는 어머니가 양육할 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과 옷과 안식처를 제공하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고자 하였다.⁵⁴⁾ 8절에서 분사 *ὀμειρόμενοι*(호메이로메노이, “열망하다”)는 본동사 *ἐὐδοκοῦμεν*(유도쿠멘, “~를 기뻐하다”)를 수식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사

49) *BDAG*, “νήπιος” ①. ⑥. β.

50) K. Lee, “Identity and Moral Formation in Early Christian Communities: Discursive Functioning of Paul’s Use of Scripture in First Thessalonians” (Ph.D. Dissertation, Stellenbosch University, 2018), 126

51) J. H. McNeel, *Paul as Infant and Nursing Mother: Metaphor, Rhetoric, and Identity in 1 Thessalonians 2:5-8* (Atlanta: SBL, 2014), 78.

52) Rosner, “The Household Setting of Paul’s Pastoral Practice and Its Biblical And Jewish Roots,” 12.

53) P. J. Budd, *Numbers: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1984), 128.

54) 8절의 *οὐ μόνον ... ἀλλὰ καὶ*(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을 참조하라.

실에 대한 바울의 고조된 기쁨을 표현한다.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않기 위해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였다(9절).⁵⁵⁾ 데살로니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여준 바울의 삶은 어떤 불순한 의도와 속임수와 개인의 이익 추구도 없이, 오로지 영혼 돌봄을 실천해왔음을 증명한다.

(2) 바울의 훈육

바울의 영혼 돌봄은 공동체의 특정한 가치 구현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고대에 유모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양육 및 영혼 돌봄에 있어서 기대되는 덕목들은 서로 달랐다.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 은유가 가족의 위계질서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모 또는 어머니 은유와의 연결성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계질서의 함의를 끌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하다.⁵⁶⁾ 이미 7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의도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며 순전한 동기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련이라는, 영혼 돌봄의 실천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아버지 은유는 데살로니가인 성도 각 개인과의(ἐνα ἕκαστον ὑμῶν) 관계성 속에서 등장한다(11절). 흥미롭게도, 말허비에 따르면 이 표현은 고대의 영혼 치유학에서 일반적인 관습의 반영으로서, 바울은 이러한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개인적 가르침이라는 모티프를 가져온다.⁵⁷⁾ 바울은 단순히 헬라 철학적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중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이 데살로니가 방문의 성질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한다. 12절에 나오는 세 분사(παρακαλοῦντες[파라칼룬테스], παραμυθούμενοι[파라뮈뉘메노이], μαρτυροῦμενοι[마르튀로메노이])는 바울의 목회가 데살로니가인들의 정체성과 도덕성 형성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과 견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 동사는 각각 고유의 의미를 지녔음에도 공동체 각 사람이 주변 세계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즉 영혼 돌봄의 구체적인 행위를 지칭한다는 공통점을

55) 바울은 유대전통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일을 같이 병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데살로니가 청중들의 직업은 수공업업자들이었고 바울이 이들 틈에서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R. F. Hock, "The Workshop as a Social Setting for Paul's Missionary Preaching," *CBQ* 41 (1979): 438-450를 참조하라.

56) M. E. Boring, *I & II Thessalonians: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5), 90; J. A. Moo, "Of Parents and Children: 1 Corinthians 4:15-16 and Life in the Family of God," in *Studies in the Pauline Epistles: Essay in Honor of Douglas J. Moo*, 62를 참조하라.

57) 영혼 치유학은 도덕적, 지적 성장과 영적 훈련, 심리 요법, 심리 상담이 결합된 학문 분야이다. Malherbe,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151.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첫 두 동사의 명사 형태인 παράκλησις(파라클레시스)와 παραμυθία(파라뮈띠아) 또는 παραμύθιον(파라뮈띠온)은 함께 나타난다(고전 14:3; 빌 2:1). 바울 당시 παραμυθέομαι의 용례는 고난의 상황에서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권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⁵⁸⁾ 세 번째 동사 μαρτύρομαι(마르튀로마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⁵⁹⁾ 이러한 세 동사의 연속된 등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각 구성원의 아버지로서 훈육과 가르침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목적을 나타내는 12절의 εἰς τὸ(에이스 토)구문은 바울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구현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상기시킨다. 이 구문은 지금까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동안 보여 주었던 사랑과 수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낸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이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참된 사랑으로 복음을 가르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영혼 돌봄의 실천이었다.

IV. 나가는 글

그레코-로마 세계 속에서 살았던 바울이 당시 널리 알려졌던 헬라 철학적 전통(수사학, 문학, 토포스 등등)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의미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바울의 자전적 진술에서 헬라철학적 전통의 인유를 찾음으로써 얻어지는 해석적 결과의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문을 연구할 때에는 단편적인 인유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신 자체의 문맥과 어조, 특정한 수사학적 표현의 의도,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은 바울의 자기변호로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의 고난을 멀리서 소식으로만 알 수 있었다. 바울은 당장 데살로니가인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지만,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인 측면에 걸쳐 고립되어 있었던 그들을 위로하며, 이전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복음과 종말론적 신앙에 더욱 확고히 뿌리내린 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었다(살전 2:12). 바울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자마자 유대인들과 동족들로부터 핍박과 회유를 받았던 데살로니가의 새 신자들을 서신으로나마 재차 접촉하려 했을 때, 무엇보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모함을 대처해야 했다. 바울의 방문과 복음 전도의 요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58) Malherb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151-152.

59) BDAG, “μαρτύρομαι” ②

복음을 위탁받은 소명 때문이었고,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하여 진정성 있는 영혼 돌봄으로 밤낮 수고하였다. 그들 사이의 거리적, 시간적 공백 동안에 데살로니가인들을 회유하려는 대적자들은 바울의 방문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 탐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함하였지만, 바울은 짧은 방문이었음에도 진정성과 수고로움으로 일관된 복음 사역의 궁극적 목적을 상기시켜야만 했던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사랑과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며 격려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서신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바울의 권면은(살전 4-5장) 이처럼 충분한 자기변호를 하고 나서야 조금 더 확실한 설득의 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참 목자상이 절실한 시대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에 나타난 바울의 자전적 진술은 한국 교회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도입부에서 소개하였듯이 목회자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도와 맞물려 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의 설교 표절, 성적 일탈, 금권선거, 횡령과 같은 심각한 윤리 문제로부터 비인격적인 태도, 권위 의식, 세속화, 성공지상주의와 같은 목회자의 기본 소양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갱신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목회자들은 바울의 자기변호 가운데 드러난 복음 사역자의 소명 의식과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영혼 돌봄이라는 목회적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참고 문헌

- Barclay, J. M. G. "Mirror-Reading a Polemical Letter: Galatians as a Test Case." *JSNT* 31: 73-93.
-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ev. by F. W. Danker, W. F. Arndt, & F. W. Gingrich. 3r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2000.
- Boring, M. E. *I & II Thessalonians: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5.
- Budd, P. J. *Numbers: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1984.
- Carson, D. A. "Mirror-Reading with Paul and against Paul: Galatians 2:11-14 as a Test Case." In *Studies in the Pauline Epistles: Essay in Honor of Douglas J. Moo*. Eds. Harmon, M. S. & Smith, J. E. Grand Rapids: Zondervan, 2014: 99-112.
- Donfried, K. P. *Paul, Thessalonica, and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2002.
- Fee, G. D.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9.

- Green, G. L.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 Hock, R. F. "The Workshop as a Social Setting for Paul's Missionary Preaching." *CBQ* 41 (1979): 438-450.
- Holmes, M. W. *1 & 2 Thessalonia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Holtz, T. "On the Background of 1 Thessalonians 2:1-12" in *The Thessalonians Debate*. Ed. Donfried, K. P. Grand Rapids: Eerdmans, 2000: 69-80.
- Kim, S. "Paul's Entry (εἰσοδος) and the Thessalonians' Faith (1 Thessalonians 1-3)." *NTS* 51 (2005): 519-542.
- Lee, K. "Identity and Moral Formation in Early Christian Communities: Discursive Functioning of Paul's Use of Scripture in First Thessalonians." Ph.D Dissertation. Stellenbosch University. 2018.
- Malherbe, A. J. "'Gentle as a Nurse': The Cynic Background to I Thess II." *NovT* 12 (1970): 203-217.
- "Exhortation in First Thessalonians" *NovT* 25 (1983): 238-256
- *Moral Exhortation, A Greco-Roman Sourcebook*.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Paul and the Popular Philosophers*. Minneapolis: Fortress, 1989.
- "Hellenistic Moralism and the New Testament" *ANRW* 2.26.1 (1992): 267-333.
-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 McNeel, J. H. *Paul as Infant and Nursing Mother: Metaphor, Rhetoric, and Identity in 1 Thessalonians 2:5-8*. Atlanta: SBL, 2014.
- Moo, J. A. "Of Parents and Children: 1 Corinthians 4:15-16 and Life in the Family of God." In *Studies in the Pauline Epistles: Essay in Honor of Douglas J. Moo*. Eds. Harmon, M. S. & Smith, J. E. Grand Rapids: Zondervan, 2014: 57-73.
- O'Brien, P. T. *Introductory Thanksgivings in the Letters of Paul*. Leiden: Brill, 1977.
- Polhill, J. B. *Act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2.
- Riesner, R. *Paul's Early Period: Christology, Mission Strategy, Theology*. Trans. D. Stot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Rosner, B. S. "The Household Setting of Paul's Pastoral Practice and Its Biblical And Jewish Roots" In *Paul as a Pastor*. Eds. Rosner, B. S. & Malone, A. S. & Burke. T. J. London: T&T Clark, 2018: 1-16.
- Schlueter, C. J. *Filling up the Measure: Polemical Hyperbole in 1*

Thessalonians 2:14-1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4.

- Shogren, G. S. *1 & 2 Thessalonians: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 Smith, A. *Comfort One Another: Reconstructing the Rhetoric and Audience of 1 Thessaloni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 Still, T. D. *Conflict at Thessalonica: A Pauline Church and Its Neighbours*.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1999.
- Tellbe, M. *Paul between Synagogue and State: Christian, Jews, and Civic Authorities in 1 Thessalonians, Romans, and Philippian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2001.
- Thom, J. C. "'The Mind is Its Own Place': Defining the Topos" In *Early 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Comparative Studies in Honor of Abraham J. Malherbe*. Eds. Fitzgerald, J. T. & Olbricht, T. H. & White, L. M. Leiden: Brill, 2003: 555-573.
- Walton, S. "What Aristotle to Do with Paul?: Rhetorical Criticism and 1 Thessalonians," *TynBul* 46/2 (1995): 229-250.
- Wanamaker, C. A. *The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0.
- Weima, J. A. D. "An Apology for the Apologetic Function of 1 Thessalonians 2:1-12." *JSNT* 68 (1997): 73-99.
- *1-2 Thessalon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14.
- Winter, B. W. "The Entries and Ethics of the Orators and Paul (1 Thessalonians 2.1-12)" *TynBul* 44/1 (1993): 55-74
- (사)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2010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https://cemk.org/resource/2524/>
- 『2013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https://cemk.org/resource/2613/>
- 『2017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https://cemk.org/resource/2699/>